

眞正한 丁茶山 研究의 길 (一)

(아울러 茶山論에 나타난 俗學的 見解를 批判함)

天台山人

一, 茶山研究의 意義

丁茶山은 近世 朝鮮이 나흔 最大의 偉人이었다.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 이 三部의 著書만으로도 李朝末 學術의 最高峰이라 하겠거늘 그 著述은 法制, 經濟, 經學, 文學, □理醫學, 語學□諺에까지 該博한 究明과 □相한 考證을 보여줌에야 누가 그 業績에 敬仰지 안홀 者 잇스리오. 그런 意味에서 이러한 著述이 아즉도 出版되지 못하고 잇는 것은 後學의 羞恥라 하야 好事者들 사이에 벌서 土□된 지 오랫동안고 한다. 이 著述은 맛당히 하로 맞비 出版되어야 한 것이오, 決코 □□□ 한 장에 몇 百□式하는 骨董의 價値와 同一視할 것이 아니다. 學術은 學術이오 骨董이 되어서는 안된다. 朝鮮과 가튼 곳에서는 古典研究者는 同時에 骨董廣告者, 그러치 안흐면 骨董蒐集者가 되기가 쉽다. 나아가 그 古物의 가진 바 時代的 價値에서 우리의 「生」에 波及한 影響 下에 그 價値를 測定하지 아니하고, 素材인 古物 自體가 卽 歷史인 줄로만 생각하야 「디오게네스」처럼 古物「桶」에 籠城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치만 우리는 古典에서 다음 두 가지를 發見하려는 者이다.

1, 모든 古典은 우리 文化發展史 上의 한 存在였다는 點에서만 그 古典을 探索하는 것

2, 消極的, 觀念論的으로는 現實 過程에의 한 反省의 資料가 되는 것

그러나 從來의 古典研究者는 이 後者만을 強調하였다. 強調라 하기보담 차라리 歷史研究의 意義가 全的으로 自家의 好古癖의 滿足의 陶醉와 이런 데 잇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假令 「茶山」을 들고 말하여도 從來의 思想的 小見들처럼 속절 업는 붓 하나로써 □□蓋蘇文, 世宗大王, 李舜臣.....을 억지로 神秘化식혀 이것을 自己의 歪曲된 思想鼓吹의 道具로 삼어오든 것 가티, 여기 다시 茶山이 아닌 茶山 다시 말하면 茶山の 眞面目을 外衣로 아름답게 化粧식혀 노흔 茶山이거

나, 그 時代的 意義를 떠난 茶山의 「茶山宗으로서의 茶山」을 우리는 警戒하며 培養하지 안하면 안된다. 卽 必要的 部分에서 茶山을 敬仰할 것이요 必要 이외의 部分에서 茶山을 昂揚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新聞은 社會的 公器라. 어느 記事가 社會的 必要 以外에서 強調되었다면 罪惡이다. 오늘날의 新聞性이 강한 記事는 돌이켜 揭板되지 못하고, 新聞社에 關係있는 數三巨頭가 吐하는 虛氣焰이거나 또는 그들이 그 헛된 高等政策으로 混用되는 때가 어대 잇슬가?

×

지난 十六日 某識에서는 茶山集(與猶堂集)을 刊行하는 分으로서 新聞社에 關係된 地位를 利用하여 丁茶山 特輯號로써 各各 全頁 一面씩의 大文字-라기보담 大廣告-를 하얏다. 그리하여 生辰 百年忌를 지나고 講演까지 하엿섯다 하니 茶山集이야 훨씬 잘 팔렸을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그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1, 現在의 新聞은 茶山 前後의 礪溪, 星湖, 李舜臣, 蓋蘇文의 몇 百年第 몇 千年第까지 廣告하야 주랴는가, 우리 當面의 現實 問題에 잇서서 茶山研究가 얼마나 重大性을 가진 것인가?

2, 그들의 그와 가튼 記事에서 茶山의 참된 面貌가 얼마나 알려졌슬가 等等이다.

나는 正堂한 意味에서의 茶山研究 乃至 古典 一般의 研究를 待學하는 同時에 지난번 兩紙特輯이 단순한 「책廣告」에 끄치지 아니하기를 바란다.